제3차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년 9월 4일 금요일 13:00-16:30	기 록 자	최가해
참석자	김용운 위원장, 방영희 부위원장, 김수정 위원, 정승원 위원, 이화복 위원, 이윤주 위원, 윤상은 위원, 이광수 위원, 최가해 위원(간사)	장 소	복지관 4층 소회의실
주요 안건	제3차 운영자문위원회 안건		

회의내용	주요 안건	1안 - 보호작업장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보고(건) 2안 - 보호작업장 2026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3안 - 기타사항
	보고자 (최가해 간사)	1안~3안 보고
	김용운 원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보호작업장에서 열심히 사업들을 진행해 온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중 보고 내용에서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발견 하셨다거나 아니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사회자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겁니다.
	정승원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못 왔던 것 같은데요. 좀 가끔씩 이렇게 빠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어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이러는지 참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용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히 이용하고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걸 넘어서서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런 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요리프로그램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직업재활 학회 행사할 때도 만드셨던 걸 주셔가지고 정말 의미 있게 잘 썼거든요. 장애 이용인 분들을 항상 옆에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직업재활 전공자 시절에 계시는 현장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걸 받아들고 선물로 받아가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칭찬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상반기가 지나고 나니까 하반기에 해야 될 것들이 눈에 조금 보이더라고요. 부모교육과 안전교육 쪽 실적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하반기에 좀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놓치지 마시고 시행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

회의내용		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 머 이런 일들을 많이 했나 싶기도 하고,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주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면,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건강검진을 하반기에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광수 위원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보조금 이용인 지원 4종 사업에 계획되어 있어서 외부 의료기관에서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이용인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주 위원	근로장애인분들이나 훈련생분들 다 같이 받는 건가요? 검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함께 진행을 하는데 근로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니까 비용은 제외되고, 훈련생들은 4종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광수 위원	검사 종류는 직장인 일반 건강검진 종류와 일치합니다. 기본적인 엑스레이와 피검사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검진을 하고, 치과검진이라던지 항목들을 더 추가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주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 아이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중증일수록 많이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소변검사나 엑스레이 찍을 때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수정 위원	아무래도 쉬운 일정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예약을 미리하고, 병원 측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선생님들이 그룹별로 나눠서 소규모로 방문을 해서 며칠에 거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MOU맺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차량을 가지고와서 출장으로 복지관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저희가 이용인분들과 직접 병원으로 가서 병원 시스템과 환경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목적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지셔서 조금씩 적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윤주 위원	병원 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배려나 이런 걸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좀 해주시나 봅니다.

	이화복 위원	혹시 중증장애인의 경우 검진비용을 연1회 정도 무료로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이광수 위원	일단은 병원검진 쪽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경기도 예산에 잡혀 있어서 저희는 그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기본검사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병원은 그렇고, 보건소에서는 있거든요.
	보고자	저희 작업장의 경우는 전문 간호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건강검진업무를 맡아서 하십니다. 전문분야니까 병원이랑 얘기를 잘 해서 피검사나 이런 것에서 기본항목들 말고 추가로 검사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화복 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에는 검진이나 그런게 잘 안되시는 분들은 집에 계시다가 어떤 병인지 모르고 그냥 사망하시는 사례들이 많아요.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라는 표현을 잘 못하셔가지고, 저희도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보건소에서 오지 말라고, 이용인분들이 막 도망가고 거부하시고 그런 분이 많아서, 간호사 분이랑 맞춰서 하시더라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수정 위원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 주시지 않으면 좀 힘들죠. 그래도 매년 가니까 친구들 이력관리가 병원에도 있고, 결과 상담할 때도 담당자가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병을 발견한다던지 기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직업 재활 사업 담당하는 팀이 제일 힘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사명감이 없다면 못하는 일들이죠.
	이화복 위원	맞아요.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보면 진짜 다양한 일이 많았었는데, 직원들을 위한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다 하고 계신 거죠?
	김수정 위원	저희 관장님이 저희 종사자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루를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힐링데이를 하라고 주셔가지고, 저희 친구들 방학 때 선생님들하고 같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서 저희팀은 유리공예를 하고 왔거든요.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직원들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광명시 사회복지사들이 쉬거나 충전할 수 있는 것 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올해부터 생일휴가도 있고, 밥값지원도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이윤주	네, 시에서 이제 생일이 속한 달에 하루를 쉴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

	위원	다. 처우개선으로 이게 수당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들 힘드니까 그렇게 그냥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방영희 부위원장	그 외에 이제 직원들도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2시간 범위 내에서 한 달에 한번 씩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팀별로 자유롭게 팀장 권한 하에 그냥 진행하라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이 광명이 좋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네,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생일휴가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하루라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전원	없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더 이상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의 안건의 의결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자 전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김용운 위원장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모든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자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